

생명을 위한 자원경제학자와 환경운동가의 조언

자연생태와 환경, 그리고 인간의 생존 조건으로서의 경제와 문화를 진지한 관점에서 탐문하고 있는 두 권의 책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한 권은 독일의 경제학자 E. F. 슈마허가 펴낸 《내가 믿는 세상》이고 다른 한 권은 환경운동가 박병상이 낸 《참여로 여는 생태공동체》다. 두 권의 차이점은 전자가 생태와 환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입각점을 제시하는 자원경제학의 고전 텍스트인 반면 《참여로 여는 생태공동체》는 시민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의 실제 사례와 그 체험의 다면상을 보고하고 있는 책이라는 데 있다.

슈마허는 《내가 믿는 세상》을 통해 인간 존재의 내면적 삶에 초점을 맞추고 진정으로 인간 사회가 나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동시에 친환경주의적이고 인간중심주의에 쏠려 있는 자신의 신념과 사회관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이 환경주의 측면에서 주목을 요하는 까닭은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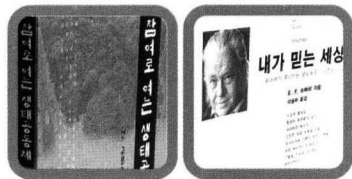
슈마허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보이는 서양 문명이 사실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에 바탕을 두고 건설된 문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폐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것은 곧 ‘종말’이다.

“이 시대는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영적인 파산 상태로 만들었음을 발견한다. 이 사고방식은 ‘지혜보다 과학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인 뉴욕이 파산 직전에 처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의문을 갖는다. 그는 또 물질적으로 빈곤한 저개발국의 가난한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이때 슈마허를 새롭게 일깨운 것은 동양의 사상,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교 경제학이다. 그는 일의 기능을 바라보는 불교의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즉, “사람의 재능을 활용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주는 것, 다른 사람들과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 생산 과정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다.

그는 “우리의 좋은 의도를, 우리의 통찰을, 우리 마음 속에 점점 자라나고 있는 새로운 철학을 어떻게 성숙시킬 수 있는가?”라고 자문하며 스스로 대답을 내놓는다. 그가 내놓은 세 가지 대답은 첫째 자연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 클수록 좋다는 생각을 체계적으로 떨쳐버리는 것. 셋째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테크놀러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과 아름다움과 영속성이라는 세 가지 미덕을 가진 궤도 위에 우리의 기술을 다시금 되돌려놓으려는 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형태가 급속도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발적 변화를 꿈꾼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에 대한 저항으로 느리게 사는 삶, 자연에 좀더 가까운 삶,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지향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감각적인 쾌락에 의존하면서 한편으로는 존재론적 도덕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은 지금까지 이상주의적인 시각에서만 접근돼온 측면이 없지 않다. 과연 그런 것이 실제 생활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 책은 그런 회의에 대한 하나의 섬세한 통찰을 보여준다. 슈마허는 그런 생활양식의 기반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



즉 생산양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슈마허에 의하면 단순하게 사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가치관과 생산양식이다. 그는 “복잡성은 많은 경우 그 자체가 과도하게 큰 데서 비롯된 결과이며, 인간적 요소를 과도하게 제거함으로써 일의 인간적 내용을 말살하고 사람들이 지혜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전문화와 분업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복잡성은 악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악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창궐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이 인간 지성의 과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권의 책, 박병상의 《참여로 여는 생태공동체》는 ‘어느 근본주의자의 환경 다투리’라는 부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환경운동의 실제 사례와 생태에 대한 저자의 단상을 묶어 놓은 책이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환경운동 문화를 위해’에서 저자는 환경운동을 문화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한편, 척박한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풍토와 환경운동가로서의 애환 등을 고백한다. 저자는 “다른 시민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운동의 경우 중앙집권적 생산력주의에 획일적으로 응답하는 소비주의와 그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물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젊은이들에게 “월급과 수당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직장 개념보다 다음 세대의 환경을 생각하는 능동적 자원활동가의 정신으로 시민단체를 노크하거나 스스로 시민단체를 결성하는” 패기를 주문한다.

‘생태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붙은 2장에서 저자는 황금조기가 황해에서 사라진 이유 등을 분석하면서 파괴된 생태가 야기하는 피해상들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우리가 생태주의를 주창해야 하는 이유 등을 피력한다.

3장 ‘과학기술과 모든살이’에서는 생명공학과 에너지 관련 과학기술의 발달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근본주의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유전자 조작이나 배아복제와 같은 윤리적 허점을 드러내는 생명공학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결코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인간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장인 ‘살림과 모든살이’에는 이 자연과 생태를 물려받을 후손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희망사항들을 묶었다. 저자는 “산업사회의 잘못된 성장을 부추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비판하는 사명과 역할을 사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을 인용하면서 위험사회를 극복하는 길은 성숙한 의식을 가진 시민의 참여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위험사회는 참여로 탈출할 수 있다. 공급자 의지에 따라 자신을 매몰시키는 물질적 편의에서 능동적으로 벗어나 분권적이고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시민운동이 정답 아닐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의 건강한 내일은 물론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는 최소한의 결단, 시민운동에서 나온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외의 미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환경문제의 사례를 모아 놓은 사료집으로서의 가치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도연 기자